굿네이버스 호남본부 '행복상자' 전달

굿네이버스 호남본부(본부장 정용진)는 감염병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 지역 초등학교 8개교에 위생키트 '행복상자'를 전달했다. '행복상자'는 하나은행에서 진행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제작됐으며, 마스크·마스크 스트랩·손소독제·양치세트 등 아동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돕기 위한 위생 물품으로 구성됐다.

광주·전남·전북 대학RCY 봉사활동

유기견 보호소 청소·케어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최근 전북 익산시 신동 유기견 보호소에서 광주·전남·전북 대학RCY 단원들과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사회문제인 '유기견'과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대학RCY 회원 간 프로그램 공유와 활동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광주전남 대학 RCY 단원 4명과 전북 대학 RCY 6명이 참여, 유기견 보호소 실내 및 마당청소 및 유기견 케어 활동을 진행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광주전남 대학 RCY 단원 최유나씨는 "전북대학 RCY 단원과 함께 유기견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기쁘다"며 "더 많은 분들이 상처받은 강아지들에게 관심을 갖고 봉사에 동참하는 문화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민빈 기자

동부소방, 무등산 사고예방 캠페인

광주 동부소방서는 지난 26일 무등산 증심사 일원에서 무등산119시민산악봉사대와 함께 산불 및 산악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소방공무원 및 무등산119시민산악봉사대 20여 명이 참여했으며 가을철 산불 예방 홍보, 등산객 안전산행 지도, 등산 중 응급상황 발생 시 신고 요령 안내, 산불 예방 관련 홍보물품 배부 등을 실시했다.

또 등산객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을 위해 등산로에 있는 안전시설 및 표지판을 정비하고 산림 정화활동도 실시했다.

김영돈 동부소방서장은 "가을철 등산객 증가로 산불 및 산악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시민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산행을 위해 캠페인 등 안전대책 추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오선우 기자

학교예술강사 지원 운영단체 선정

광주 서구문화원, 4년 연속 사업 수행

광주 서구문화원(원장 정인서)이 35억원 규모의 2022년도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단체로 선정됐다. 이로써 2019년 이후 4년 연속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서구문화원은 지난 2019~2020년 사업에서는 7개 분야(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 사업을 운영했고, 2021년부터 국악을 포함한 8개 분야 운영단체로 연속 선정됐다.

2022년에는 광주지역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등 490여 학교에 8개 분야 350여명의 예술강사를 배치해 문화예술교육을 기반으로 한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동아리, 돌봄교실을 운영하게 된다.

/이연수 기자

인사

광주시

◇ 4급 승진 ▲예산담당관실 하경완 ▲총무과 황인채 ◇ 농촌지도관 승진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 이동열

"주민들 자발적 참여 자치 실현 앞장"

김정희 동구 학동 마을계획실천단장

입대위·사랑채 등 마을활동가 보폭 넓혀
주민자치회 전환 계기로 상생·협력 관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서로 협력하며 살맛 나는 동구, 온정 넘치는 학동을 만들어가는 모습에 뿌듯합니다."

평범한 주부가 마을활동가로 변신해 진정한 마을단위 주민자치 실현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광주 동구 학동 마을계획실천단 김정희 단장(48)의 이야기다.

김 단장이 마을활동에 발을 들이게 된 것은 5년 전 거주 중인 무등산 아이파크의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여한 것이 시초다.

김 단장은 "내조와 육아밖에 몰랐고 남 앞에 나선 적 없던 삶이었지만, 내 가족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용기를 냈다"고 회고했다.

회장직을 맡아 활동하면서 행동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단순히 아파트 내부 활동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아파트와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을 다방면으로 물색했다.

성과는 차츰 나타났다. 바쁘게 뛰어다닌 결과 동구의 각종 지원사업을 유치하기 시작한 것이다. 수제비누 만들기, 가죽공예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마을활동가로서의 출발을 알렸다.

김 단장은 "주민들과 함께 계획하고 추진한 활동이 성과를 내는 것에 보람을 느꼈다"면서 "'하면 된다'는 자신감도 생겼고, 아파트를 넘어 마을을 위한 활동에도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옛 남광주역 부지에 개소한 마을활동 거점공간 '학동마을사랑채'에도 참여해 부회장직을 맡았다. 같은 해 6월 시작해 지금껏 활발히 진행 중인 '상어(상인과 어르신)가족' 사업은 김 단장으로 하여금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 계기다.

김 단장은 "시장 상인과 마을 어르신을 일대일 매칭해 음식을 만들면서 서로의 가족이 돼 주는 상어가족이야말로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사랑채의 정체성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사업"이라고 역설했다.

지난 6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것은 마을활동가로서 김 단장의 인생에 큰 반환점이 됐다. 학동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음으로써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유지하기 위해 조직된 마을계획실천단의 단장으로 추대된 것이다.

주민 250여 명으로 구성된 마을계획실천단은 마을자원 조사를 바탕으로 ▲마을비전학교 ▲마을의제 발굴 ▲마을브랜드 개발 ▲마을총회 등 사업을 진행하며 주민 의견을 수렴해 학동 마을 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하게 된다.

김 단장의 현재 목표는 오는 11월 예정된 총회의 성공적인 마무리다. 비전학교를 마치고 학동만의 고유 브랜드를 정한 뒤 마을 의제 발굴에 나설 예정이다. 총회에서 발굴한 의제들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실행에 착수하게 된다. 진정한 마을단위 주민자치 실현을 불과 한걸음 남겨둔 김 단장이 벅차오르는 이유다.

김 단장은 "예전에는 아파트에 국한된 이익만을 추구했다면, 지금은 마을 전체의 이익과 함께 주민 간 상생·협력을 고려하는 등 사고의 범위가 넓어졌다"면서 "적잖이 힘들 때도 많지만 내 아이 앞에서 당당한 엄마, 학동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일꾼, 미력이나마 지역사회 공헌에 일조하는 주민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선우 기자

언론재단 광주지사, 섬학교 미디어교육

자유학기제 연계 완도·신안 본교·분교 4개교서 신문 제작

한국언론진흥재단 광주지사가 미디어교육과 연계한 전남지역 섬 학교 중학생 꿈 키우기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언론재단 광주지사는 최근 신안군 임자중학교에서 '섬으로 찾아가는 작은학교 미디어교육 페스티벌'을 진행했다.

이날 페스티벌에는 임자중 1학년 학생 20명이 참여해 신문기사를 통해 진로를 탐색하고, 자신의 꿈과 희망을 담은 꿈 신문을 직접 제작했다.

꿈신문은 '내가 뉴스 주인공'이라는 주제로 30대의 내가 10대인 나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등을 담아 신문을 제작하는 것으로 자유학년제 진로탐색 활동을 결합한 자기주도형 진로개발 프로그램이다.

'작은학교 미디어교육 페스티벌'은 도시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디어교육 기회가 부족한 지역 교육 현실을 반영한 언론재단 광주지사의 지역 특화 사업이다.

올해는 4월 20일 완도 금일도 금일중학교를 시작으로 ▲금일중 생일분교(5월25일) ▲신안 압해중(7월9일) ▲신안 임자중(9월17일) 등 완도와 신안 지역 4개 중학교를 방문해 80여명의 학생을 만났다.

임자중 김홍주 교사는 "학생들이 신문 뉴스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강사분들이 재미있게 강의해줘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다"면서 "뉴스나 글쓰기를 배울 수 있는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이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애국지사 김영남 옹 별세

광주시는 광주·전남지역에서 유일한 생존 애국지사였던 김영남 애국지사가 지난 26일 오후 6시 향년 94세로 작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고 김영남 애국지사는 1926년 화순 출생으로 1944년 7월 일제에 의해 진해에 있던 일본군 해군해병대에 18세의 나이로 강제 입대했다. 독립항쟁을 결심하고 5명의 동지를 규합해 병영에 방화하고 무기를 탈취해 탈출을 계획했다가 발각돼 경비부 헌병대에 붙잡혔다.

1945년 3월 진해경비부 군법회의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을 받고 군형무소 등에서 옥고를 치르다가 일본의 패전으로 1945년 10월 형집행정지로 출옥했다.

정부는 김 지사의 공훈을 기려 1986년 대통령표창,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했다.

김 지사는 해방 후 6·25전쟁이 발발하자 육군종합학교 1기로 입대해 전장을 누비다 포로로 붙잡혀 탈출하는 등 여러차례 생사의 고비를 넘기며 10여 년간 군에 복무한 후 중령으로 예편했다.

빈소는 광주보훈병원 장례식장 2호실에 마련됐으며 28일 오전 9시 발인한 후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에 안장될 예정이다.

/황애란 기자

한국철도, 화물차 충돌사고 예방 캠페인

한국철도 광주전남본부는 최근 광주 평동산업단지 내 철도교량 하부에서 광산구, ㈔평동산업단지운영협의회와 함께 화물차량 충돌사고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화물차량이 윙바디문을 연 채 운행하다 철도교량 보호틀과 충돌, 차량 및 시설물이 크게 파손되는 사고를 미연해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철도는 ▲화물차 전용 네비게이션 개발·운영사인 ㈜맵퍼스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우회경로 안내 앱서비스 제공 ▲도로관리청(광산구청)과 협동으로 지장시설물 이설 등 인프라 개선 ▲㈔평동산업단지운영협의회와 민관 협력체 구축 및 합동 캠페인 전개 등 사고 예방을 위해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영철 한국철도 광주전남본부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 간 구성된 거버넌스를 적극 활용해 철도안전 확보는 물론 지역 내 사회안전 및 공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환준 기자

결혼

▲권오윤(전남대 생명화학공학부 교수)·홍종옥씨 아들 권휘정군, 오성권(대우전자 특판)·김현란씨 딸 오민진양=10월 2일(토) 오후 2시30분 광주시 서구 풍서좌로 제이아트웨딩홀 3층 페디스홀

▲김형수(건설업)·이정미씨 아들 김양휘군, 조광석(베데스다요양원 원장)·정민희씨 딸 조성은양=10월 2일(토) 오후 4시 광주 서구 죽봉대로 위더스웨딩홀 3층 아모르홀

▲고 안광수·최미숙씨 아들 안현성군, 최삼영(광주 양지종합사회복지관장)·정민영씨 딸 최이레양=10월 2일(토) 오후 4시40분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더컨벤션 송파문정 13층 아모르홀.

▲조동수(전 광주일보 주필)·서경숙씨 아들 조찬호군, 김상겸·남희씨 딸 김혜인양=10월 3일(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도심공항터미널 소노펠리체 다이아몬드홀

▲정용빈·전지원씨 아들 정재호군, 이홍재(광주일보 주필)·김숙희씨 딸 이보미양=10월 4일(월) 오후 2시30분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드레스가든

알림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마음건강주치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 5시 무료상담 654-3802.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법률구조. 면접상담은 광주지방 검찰청 민원실 2층, 광주 동구 준법로 3번지.

▲광주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주간지지서비스(주 5일 운영) 회원 정신건강 상담서비스 무료제공 및 만성정실질환자에 대한사례 관리(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233-0468.

▲광주지방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소송 분쟁 시 비용지원. 1577-8339, 국번없이 132.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 351-1206.